

제1편 북한산 2,000년의 발자취

I. 고대

[서기전 (B.C.)]

○서기전 18년: 백제의 도읍을 한산 부아악에 정하다.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或云, 朱蒙到卒本, 娶越郡女, 生二子】,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陞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 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 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 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沸流謂弟溫祚曰, 始, 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勸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 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溟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北史及隋書皆云, 東明之後, 有仇台, 篤於仁信, 初立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遂爲東夷強國, 未知孰是】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은 그 아버지가 추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이라고 하는데, 북부여(北扶餘)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다.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주몽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졸본부여왕이 죽으니 주몽이 그 지위를 이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沸流)라 하고 둘째 아들은 온조라 하였다[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한 뒤에 건너편 고을의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간(烏干)·마려(馬黎)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따라오는 백성들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열 명의 신하가 간하기를 “생각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쪽은 한수(漢水)를 띠고, 동쪽은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비옥한 토지가 펼쳐졌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닿아 있어 천험(天險)의 지세(地勢)는 얻기 어려우니 이곳에 도읍(都邑)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 인천)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도움을 받아 국호(國號)를 십제(十濟)라 하니, 이 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이였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으므로 돌아와 위례(慰禮)를 보았는데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 것을 보고 참회하여 죽으니, 그 신민(臣民)이 모두 위례에 돌아왔다. 올 때에 백성이 즐겨 좃았으므로 뒤에 국호를 백제(百濟)라고 고쳤다. 그 세계(世系)가 고구려(高句麗)와 같은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부여(扶餘)라고 하였다[혹은 이르기를, 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우태(優台)니 북부여왕(北扶餘王)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이며,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니 졸본인(卒本人)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長子)는 비류, 차자(次子)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북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B.C. 37) 2월에 남쪽으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소서노를 취하여 비(妃)로 삼았다. (소서노가) 건국에 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주몽이 특히 총애하여 비류 등을 마치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禮氏)에게서 낳은 아들 유유(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세우고 위(位)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와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여기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산을 기울여서 도와 방업(邦業)을 이룩해 그 수고가 많았다. 대왕이 사망하자 나라는 유유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한곳 여기에 있어 혹(疣)과 같아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아우(溫祚)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溍水)와 대수(帶水)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가서 살았다 한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東明)의 후손에 구태(仇台)란 이가 있어 인신(仁信)에 돈독(頓篤)하였다. 처음 대방고지(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웠는데 한(漢)의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도(公孫度)가 딸을 맞이하여 그 아내로 삼았다. 드디어 동이(東夷)의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그 건국설에 있어) 어느 편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서기전 6년: 온조왕이 한산 아래에 책을 세우다.

十三年 秋七月 就漢山下 立柵 移慰禮城民戶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13년(B.C. 6) 추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울타리를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이주시켰다.

○서기전 5년: 백제 온조왕이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다.

十四年 秋七月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14년(B.C. 5) 7월,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인민을 나누어 보냈다.

[132년]

○132년 2월: 백제 개루왕이 북한산성을 축조하다.

(蓋婁王) 五年, 春二月, 築北漢山城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蓋婁王>

5년(132), 춘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

[371년]

○371년: 백제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다.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湏河上, 俟其至, 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26년(371)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오므로, 왕이 듣고 패하(湏河: 예성강)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병이 패배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斯由: 고국원왕)가 역전하여 막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죽으니,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왔다. 서울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392년]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한수 이북의 성을 함락하다.

八年 秋七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十一月, 薨於狗原行宮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8년 추7월, 고구려왕 담덕(談德, 廣開土王)이 병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북변(北邊)을 쳐 석현(石峴: 지금의 개풍군 청석동)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병사들의 운용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막아내지 못하니, 한수(漢水) 이북의 여러 부락이 많이 함락되었다. 동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關彌城: 지금의 교동도 혹은 파주의 오두산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이 구원(狗原)에서 사냥을 하었는데, 1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월에 구원의 행궁에서 돌아갔다.

[395년]

○395년 가을 8월: 백제 아신왕의 군대가 패수에서 패전하였다.

四年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湏水之上, 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4년(395) 추8월에 왕이 좌장(佐將) 진무(眞武)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고구려왕 담덕(談德: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패수(湏水: 예성강) 강변에 진을 치고 항거하니, 아군이 크게 패하여 사망자가 8,000명이었다.

○395년 11월: 백제 아신왕이 한산성에서 군사를 위로하다.

四年 冬十一月, 王欲報湏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青木嶺下, 會, 大雪, 士卒多凍死, 迴軍至漢山城, 勞軍士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4년 11월 왕이 패수의 패전을 보복하고자 친히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한수(漢水)를 건너 청목령(青木

嶺: 개성 부근) 밑에 이르렀으나, 큰 눈이 내려 많은 사졸이 동사(凍死)하므로 회군(廻軍)하여 한산성(漢山城)에 이르러서 군사를 위로하였다.

[475년]

○475년 추9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복성을 치다.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 於是,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 無益也, 盍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荔滿致祖彌桀取 【木荔祖彌皆複姓隋書以木荔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尔萬年 【再曾古尔皆複姓】 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三國史記』卷25「百濟本紀」第3 蓋鹵王>

21년(475) 9월에 고구려왕 거련(巨璉: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 이에 도림(道琳)이 도망해 돌아와서 이 사실을 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곧 군사를 장수에게 내주었다. 근개루왕(近蓋婁王)이 이를 듣고 아들 문주(文周)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신용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즐겨하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너도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너는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도록 하라”고 하였다. 문주는 이에 목협만치(木荔滿致)·조미걸취(祖彌桀取)[목협(木荔)과 조미(祖彌)는 모두 복성(複姓)이다. 수서(隋書)에는 목협(木荔)이 두 개의 성(姓)으로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 때 고구려의 대로(對盧)인 제우(齊于)·재증걸루(再曾桀婁)·고이만년(古尔萬年) [재증(再曾)·고이(古尔)는 모두 복성(複姓)이다]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쳐 7일 만에 함락하고, 옮겨 남성(南城)을 치니 성 안이 흉흉하였다.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이다.

六十三年 九月,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第6 長壽王>

63년(475) 9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의 도읍인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백제왕 부여경(扶餘慶: 개로왕)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476년]

○476년 2월: 백제 문주왕이 한수 이북의 민호를 이주시키다.

二年 春二月,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三國史記』卷26「百濟本紀」第4 文周王>

2년(476) 춘2월,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수리하고 한강(漢江) 이북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켰다.

[482년]

○482년 9월: 말갈족이 한산성을 습파하다.

四年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虜三百餘戶以歸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4년(482) 추9월, 말갈(靺鞨)이 한산성(漢山城)을 습파(襲破)하고, 300여 호를 노획(虜獲)하여 돌아갔다.

[483년]

○483년 봄: 백제 동성왕이 한산성에 이르러 군인을 위문하였다.

五年 春, 玉以獵出 至漢山城 撫問軍民 浹旬乃還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5년(483) 봄, 왕이 사냥으로 한산성(漢山城)에 이르러서 군민(軍民)을 위문(慰問)하고 10일 만에 돌아왔다.

[499년]

○499년 여름: 백제의 한산인들이 고구려로 도망가다.

二十一年 夏, 大旱, 民饑相食, 盜賊多起, 臣寮請發倉賑救, 王不聽, 漢山人亡人高句麗者二千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21년(499) 여름, 크게 가뭄이 백성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 신하들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한산(漢山) 사람이 고구려로 도망하여 가는 자가 2,000명이나 되었다.

[507년]

○507년 10월: 고구려 장군 고로가 한성을 공격하려 하다.

七年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靺鞨謀, 欲攻漢城, 進屯於 橫岳下, 王出師戰退之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武寧王>

7년(507) 동10월, 고구려의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靺鞨)과 공모하여 한성(漢城)을 치려하여 횡악(橫岳) 아래에 진둔(進屯)하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격퇴시켰다.

○507년 10월: 고구려 장군 고로를 보내어 한성을 공격하고자 했다.

十六年 冬十月, 王遣將高老與靺鞨謀, 欲攻百濟漢城, 進屯於橫岳下, 百濟出師逆戰, 乃退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王>

16년(507) 동10월, 왕이 장군 고로(高老)를 보내어 말갈(靺鞨)과 모의하여 백제의 한성(漢城)을 공격하고자 횡악(橫岳)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백제가 군사를 내어 역습을 하므로 퇴각하였다.

[523년]

○523년 2월: 무령왕이 한성에 행차하다.

二十三年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三月, 至自漢城
 <『三國史記』卷26「百濟本紀」第4 武寧王>

23년(523) 춘2월, 왕이 한성(漢城)에 가서 좌평(佐平) 인우(因友), 달솔(達率) 사오(沙烏) 등을 명하여 한수(漢水) 이북 주군(州郡)의 백성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쌍현성(雙峴城)을 쌓았다.

[538년]

○성왕 16년 봄: 백제 성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다.

十六年 春, 移都於泗泚【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三國史記』卷26「百濟本紀」第4 聖王>

16년 봄, 사비(泗泚)[일명 소부리]에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하였다.

[548년]

○548년 정월: 고구려왕 평성이 독산성을 치다.

二十六年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三國史記』卷26「百濟本紀」第4 聖王>

26년(548) 춘정월, 고구려왕 평성(平成: 양원왕)이 예(濊)와 공모하고 한북(漢北) 독산성(獨山城)을 쳤다.

[551년]

○진흥왕 12년: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眞興大王 ...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迺滄非西迺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三國史記』卷44「列傳」第4 居柒夫>

진흥대왕(眞興大王) ... 12년 신미(551)에 왕이 거칠부(居柒夫)와 구진(仇珍) 대각찬(大角滄), 비태(比台) 각찬(角滄), 탐지(耽知) 잡찬(迺滄), 비서(非西) 잡찬, 노부(奴夫) 파진찬(波珍滄), 서력부(西力夫) 파진찬, 비차부(比次夫) 대아찬(大阿滄), 미진부(未珍夫) 아찬(阿滄) 등 8장군(將軍)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은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를 이어서 죽령(竹嶺) 이북, 고현(高峴)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553년]

○553년 7월: 신라가 신주를 두다.

三十一年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三國史記』卷26「百濟本紀」第4 聖王>

31년(553) 추7월, 신라가 백제의 동북변을 취하여 신주(新州)를 두었다.

○553년 7월: 진흥왕이 백제 동북지방에 신주를 설치하다.

十四年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淦武力爲軍主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興王>

14년(553) 추7월, 백제의 동북 지방을 취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淦) 무력(武力)으로 군주(軍主)를 삼았다.

[555년]

○555년 10월: 왕이 북한산을 순행하다.

十六年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興王>

16년(555) 동10월, 왕이 북한산(北漢山)에 순행하여 강역을 획정하였다.

○555년 11월: 진흥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오다.

十六年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皆原之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興王>

16년(555) 11월,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갔다 온 주군(主郡)에 교(敎)를 내려 1년의 세납을 면제하고 해당 지방 죄인을 특별히 사면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을 제외하고 다 풀어 주게 하였다.

[557년]

○진흥왕이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두다.

十八年 ... 廢新州, 置北漢山州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興王>

18년(557) ... 신주(新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다.

[603년]

○603년 8월: 고구려 장군 고승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다.

十四年 秋八月, 王遣將軍高勝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三國史記』卷20「高句麗本紀」第8 嬰陽王>

14년(603) 추8월, 왕이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니, 신라왕(진평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므로, 성 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며 상응(相應)하니 고승은 신라의 무리가 많고 아군이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까 하여 물러났다.

○603년 8월: 신라 진평왕이 북한산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퇴하다.

二十五年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平王>

25년(603) 추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범하므로 왕이 몸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막았다.

[607년]

○607년 10월: 신라에서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두다.

二十九年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平王>

29년(568) 동10월,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였다.

[618년]

○618년: 북한산주의 변품이 가잠성에서 전투를 하다.

四十年, 北漢山州軍主邊品謀復椴岑城, 發兵與百濟戰, 奚論從軍赴適力戰, 死之, 論讚德之子也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平王>

40년(618), 북한산주(北漢山州)의 군주(軍主) 변품(邊品)이 가잠성(椴岑城)을 회복하려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우는데, 해론(奚論)이 중군하여 적진에 들어가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해론은 찬덕(讚德)의 아들이었다.

[659년]

○659년 10월: 한산주에 장의사를 축조해 장춘과 피랑의 명복을 빌게 하다.

六年 ... 冬十月, 王坐朝, 以請兵於唐不報, 憂形於色, 忽有人於王前, 若先臣長春罷郎者, 言曰, 臣雖枯骨, 猶有報國之心, 昨到大唐認得, 皇帝命大將軍蘇定方等, 領兵以來年五月, 來伐百濟, 以大王勤佇如此, 故茲控告, 言畢而滅, 王大驚異之, 厚賞兩家子孫, 仍命所司, 創漢山州莊義寺, 以資冥福

<『三國史記』卷5「新羅本紀」第5 太宗王>

6년(659) ... 동10월에 왕이 조정에 좌어(坐御)하였을 때 당에 청병한 회보가 없으므로 근심하는 빛이 겉으로 나타나자, 홀연히 왕 앞에 선신(先臣) 장춘(長春)과 파랑(罷郎) 같은 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신(臣)이 비록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보국할 생각이 있어 어제 당에 갔더니 당의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蘇定方)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백제를 치기로 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께서 하도 골똥히 바라보고 생각하시므로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그 말이 그치자 없어져 버렸다. 왕이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겨 장춘 · 괴랑 양가의 자손을 후히 상주고 관리에게 명하여 한산주(漢山州)의 장의사(莊義寺)를 개창하여 그들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661년]

○5월 9일: 고구려장군 뇌음신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八年 … 五月九日【一云十一日】，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合軍，來攻述川城，不克，移攻北漢山城，列拋車飛石，所當陴屋輒壞，城主大舍冬陔川使人擲鐵蒺藜於城外，人馬不能行，又破安養寺廩廡，輸其材，隨城壞處，卽構爲樓櫓，結緇綱，懸牛馬皮綿衣，內設弩砲以守，時，城內只有男女二千八百人，城主冬陔川能激勵少弱以敵強大之賊，凡二十餘日，然糧盡力疲，至誠告天，忽有大星落於賊營，又雷雨以震，賊疑懼，解圍而去，王嘉獎冬陔川，擢位大奈麻

<『三國史記』卷5「新羅本紀」第5 太宗王>

8년(661) … 5월 9일[혹은 11일이라 함]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靺鞨) 장군 생해(生偕)의 군과 연합하여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옮기어 북한산성을 공격하여 포차(拋車)를 벌여놓고 돌을 날리니, 그것에 맞은 비옥(陴屋)은 곧 무너졌다. 성주(城主)의 대사(大舍) 동타천(冬陔川)이 사람을 시켜 철질러(鐵蒺藜)를 성 밖에 던져 퍼 놓으니, 인마(人馬)가 다니지 못하였고, 또 안양사(安養寺)의 창고를 헐어 그 재목을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다 누로(樓櫓)을 만들어 굽은 줄로 망을 엮고 우마의 가죽이나 솜옷 등속을 걸어매고 그 안에다 노포(弩砲)를 준비하여 지켰다. 이 때 성 안에는 단지 남녀 2,800명이 있었는데, 성주 동타천이 어린이와 약자들을 격려하여 강대한 적과 대적한 지 20여 일에 이르렀다. 양식이 다하고 힘은 지쳤으므로 지성껏 하늘에 빌었더니 홀연히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뇌우가 진동하니 적이 의심을 내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왕은 동타천을 가상히 여겨 대나마(大奈麻)의 위(位)에 발탁되었다.

○661년 봄: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다.

龍朔元年，春，王謂百濟餘燼尚在，不可不滅，以伊淩品日蘇判文王大阿淩良圖等爲將軍，往伐之，不克，又遣伊淩欽純【一作欽春】眞欽天存蘇判竹旨等濟師，高句麗靺鞨謂新羅銳兵皆在百濟，內虛可擣，發兵水陸並進，圍北漢山城，高句麗營其西，靺鞨屯其東，攻擊浹旬，城中危懼，忽有大星落於賊營，又雷雨震擊，賊等疑駭，解圍而遁，初，庾信聞賊圍城，曰，人力旣竭，陰助可資，詣佛寺設壇祈禱，會有天變，皆謂至誠所感也

<『三國史記』卷42「列傳」第2 金庾信中>

용삭(龍朔: 당 고종 연호] 원년 봄, 왕은 백제의 나머지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찬(伊淩) 품일(品日)과 소판(蘇判) 문황(文王)과 대아찬(大阿淩) 양도(良圖) 등을 장군(將軍)으로 삼아 가서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또 이찬(伊淩) 흠순(欽純)[欽春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 진흠(眞欽) · 천조(天存)과 소판(蘇判) 죽지(竹旨)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靺鞨)은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에 가 있어 국내가 비었으니 공략할 만하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수륙 양면으로 함께 와서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는 서쪽에 진치고 말갈은 동쪽에 진을 치고 공격한 것이 열흘에 이르니, 성내에서는 위태로움과 두려움에 쌓였다.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뇌성과 비가 오고 벼락을 치니, 적들이 의혹하고 놀라 포위를 풀고 도망하였다. 처음에 유신(庾信)은 적이 성을 포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의 힘이 이미 다하였으니 음조(陰助)를 빌어야 하겠다.” 하고 불사(佛寺)에 나가 단(壇)을 베

풀고 기도하였는데, 마침 하늘에서 번이 일어나자 모두 말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다.

[668년]

○총장원년: 문무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북한산성에 이른다.

摠章元年戊辰, 高宗皇帝遣英國公李勣, 帥師伐高句麗, 又遣仁問徵兵於我, 文武大王與仁問出兵二十萬, 行至北漢山城, 王住此, 先遣仁問等, 領兵會唐兵擊平壤, 月餘, 執王臧, 仁問使主[王]跪於英公前, 數其罪, 王再拜, 英公禮答之, 卽以王及男產男建男生等還

<『三國史記』卷44「列傳」第4 金仁問>

총장(摠章: 당 고종 연호) 원년(문무왕 8년) 무진(戊辰)에 당의 고종이 영국공(英國公) 이적(李勣)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는 한편, 또 인문(仁問)을 보내어 우리에게도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인문과 함께 군사 20만 명을 출동하여 북한산성에 이르렀다. 왕은 여기에 머무르고 먼저 인문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당의 군사와 만나 평양을 공격하여 한 달여 만에 보장왕(寶臧王)을 잡았다. 인문이 고구려왕을 영공(英公) 앞에 꿇어앉게 하고 그 죄를 헤아리니, 왕이 두 번 절하고 영공이 이에 답례를 하였다. 바로 왕과 남산(男產)·남건(男建)·남생(男生) 등이 돌아갔다.

○7월 16일: 문무왕이 한성주에 행차하다.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敎諸摠管往會大軍, 文穎等遇高句麗兵於蛇川之原, 對戰, 大敗之,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 高句麗王先遣泉男產等, 詣英公請降, 於是, 英公以王寶臧王子福男德男大臣等二十餘萬口廻唐, 角千金仁問大阿滄助州隨英公歸, 仁泰義福藪世天光興元隨行, 初, 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壤, 次盼次壤, 聞唐諸將已歸, 還至漢城

<『三國史記』卷6「新羅本紀」第6 文武王 上>

추7월 16일, 왕이 한성주(漢城州)에 이르러 여러 도의 총관(摠管)에게 교서를 내려, 당(唐)의 대군과 만나라고 하였다. 문영(文穎) 등은 사천원(蛇川原)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마주 싸워 크게 깨뜨렸다. 9월 21일에는 당의 대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에워싸니, 고구려왕이 먼저 천남산(泉男產) 등을 보내어 영공(英公)에게 와서 항복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영공은 고구려왕 보장(寶臧)과 왕자 복남(福男)·덕남(德男)과 대신 등 20여만 명을 거느리고 당으로 돌아가는데, 각간 김인문과 대아찬 조주(助州)도 영공을 따라가니 인태(仁泰)·의복(義福)·수세(藪世)·천광(天光)·흥원(興元)도 이에 수행하였다. 처음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은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던 중 힐차양(盼次壤)에 이르러 당의 여러 장군이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음을 듣고 도로 한성으로 돌아왔다.

* 연대미상 및 통사적 서술

○백제의 도읍 변천에 관한 설명

後漢書云, 三韓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焉北史云, 百濟東極新羅, 西南俱限大海, 北際漢江, 其都曰居拔城,

又云固麻城，其外更有五方城通典云，百濟南接新羅，北距高麗，西限大海舊唐書云，百濟，扶餘之別種，東北新羅，西渡海至越州，南渡海至倭，北高麗，其王所居，有東西兩城新唐書云，百濟西界越州，南倭，皆踰海，北高麗，按古典記，東明王第三子溫祚，以前漢鴻嘉三年癸卯，自卒本扶餘至慰禮城，立都稱王，歷三百八十九年，至十三世近肖古王，取高句麗南平壤，都漢城，歷一百五年，至二十二世文周王移都熊川，歷六十三年，至二十六世聖王移都所夫里，國號南扶餘，至三十一世義慈王，歷年一百二十二，至唐顯慶五年，是義慈王在位二十年，新羅庚信與唐蘇定方討平之

<『三國史記』卷37「雜誌」第6 地理4 百濟>

『후한서(後漢書)』에는 “삼한(三韓)이 78국인데, 백제가 그 중의 1국이다.” 하였고, 『북사(北史)』에는 “백제는 동쪽으로 신라에 극(極)하고, 서남쪽은 모두 큰 바다에 한(限)하였으며, 북쪽은 한강에 임(臨)하였는데, 그 도읍은 거발성(居拔城)이라 하고 또 고마성(固麻城)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또 오방성(五方城)이 있다.”고 하였다. 『통전(通典)』에는 “백제가 남으로 신라와 접하고, 북으로 고구려에 닿았으며, 서쪽은 큰 바다에 한(限)하였다.”고 하였다. 『구당서(舊唐書)』에는 “백제는 부여(扶餘)의 별종(別種)이니, 동북쪽은 신라요, 서쪽은 바다를 건너 월주(越州)에 이르고, 남쪽은 바다를 건너 왜(倭)에 이르며, 북쪽은 고구려(高句麗)이다. 그 왕이 거처하는 데는 동·서의 2성(城)이 있다.” 하고, 『신당서(新唐書)』에는 “백제의 서계(西界)는 월주(越州)요, 남(南)은 왜(倭)니 모두 바다 건너 있으며, 북쪽은 고려(高麗: 고구려)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고전기(古典記)』에,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홍가 3년 계묘에, 졸본부여에서 위례성(慰禮城)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였다. 그 후 389년이 지난 13대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을 취하고 한성(漢城)에 도읍하여 105년을 지냈으며, 22대 문주왕(文周王)에 이르러 도읍을 웅천(熊川: 공주)으로 옮기고, 63년을 지내 26대 성왕(聖王) 때에는 소부리(所夫里: 부여)로 도읍을 옮겨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하였다. 31대 의자왕(義慈王)에 이르기까지 122년을 지냈다. 당(唐) 현경(顯慶: 고종 연호) 5년, 의자왕의 재위 20년에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과 당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와서 토평(討平)하였다.

○양강왕 : 고구려 장수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북(漢北)의 땅을 찾으러 가다.

及陽岡王卽位，溫達奏曰，惟新羅割我漢北之地爲郡縣，百姓痛恨，未嘗忘父母之國，願大王不以愚不肖，授之以兵，一往必還吾地，王許焉，臨行誓曰，鷄立峴竹嶺已西，不歸於我則不返也，遂行與羅軍戰於阿旦城之下，爲流失所中，路而死，欲葬，柩不肯動，公主來撫棺曰，死生決矣，於乎歸矣，遂舉而窆，大王聞之悲慟

<『三國史記』卷45「列傳」第5 溫達>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빼앗아 군현(郡縣)으로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불肖(不肖)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雞立峴)과 죽령(竹嶺)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였다. 마침내 나가 신라 군사와 아차성(阿且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길에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공주(公主)가 와서 관을 달래어 말하기를 “생사(生死)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하고 관을 들어 하관을 하였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 하였다.

○고구려 한산주의 고지명

漢山州 … 北漢山郡 【一云坪壤】

<『三國史記』卷37「雜誌」第6 地理4 高句麗>

한산주(漢山州) ... 북한산군[일명 평양]이다.

○북한산에 장의사를 만든 내력

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役, 長春郎·罷郎死於陣中. 後討百濟時, 見夢於太宗曰, 臣等昔者爲國亡身, 至於白骨, 庶欲完護邦國, 故隨從軍行無怠而已. 然迫於唐帥定方之威, 逐於人後爾. 願王加我以小勢. 大王驚怪之, 爲二魂, 說經一日於牟山亭, 又爲創壯義寺於漢山州, 以資冥援

<『三國遺事』「紀異」卷1 長春郎 罷郎>

처음 백제군과 황산(黃山)에서 싸울 때 (신라의)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이 진중(陣中)에서 죽었다. 뒤에 백제를 칠 때에 태종무열왕의 꿈에 나타나 가로되 “신(臣) 등은 예전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심지어 백골이 되었어도 나라를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여 종군(從軍)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의 위세에 눌려 남의 뒤만 쫓으니, 원컨대 왕은 우리에게 적은 군세라도 주십시오.” 하였다. 대왕이 놀라고 괴이하다고 여겨 두 혼(魂)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경(經)을 설(說)하고 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壯義寺)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어 주는 터전으로 삼았다.

○한산군과 관련된 지명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三國史記』卷35「雜誌」第4 地理2 新羅>

한주(漢州)는 본시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郡)으로 신라가 빼앗았는데 경덕왕(景德王)이 한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광주(廣州)로 영현(領縣)이 둘이다.

○한산과 관련된 지명

六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改爲貴幢, 衿色青赤, 三曰漢山停, 本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罷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六年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青, 四曰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本悉直停, 太宗王五年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完山停, 本下州停, 新文王五年罷下州停, 置完山停, 衿色白紫

<『三國史記』卷40「雜誌」第9 職官 下>

육정(六停), 1은 대당(大幢: 國都 부근)이라 하여, 진흥왕 5년에 처음으로 두었으며, 소매색깔[衿色]은 자백(紫白)이다. 2는 상주정(上州停: 상주)이라 하여 진흥왕 13년에 두었는데, 문무왕 13년에 이르러서 귀당(貴幢)으로 개칭했다. 소매색깔은 청적(靑赤)이다. 3은 한산정(漢山停)이라 하였는데 본래 신주정(新州停)이었다. 진흥왕 29년에 신주정을 파하고 남천정(南川停: 利川)을 설치하였으며, 진평왕 26년에는 남천정을 파하고 한산정을 설치하였다. 소매색깔은 황청(黃靑)이다. 4는 우수정(牛首停: 춘천)이다. 본래 비열홀정(比烈忽停: 안변)이었는데,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파하고 우수정을 두었던 것이며, 소매 색깔은 녹색(綠白)이다. 5는 하서정(河西停: 강릉)이라 한다. 본래 실직정(悉直停: 삼척)이었는데, 태종무열왕 5년에 실직정을 파하고 하서정을 설치하였으며, 소매 색깔은 녹색(綠白)이다. 6은 완산정(完山停: 창녕)이라 한다. 본시는 하주정(下州停)이었는데, 신문왕 5년에 하주정을 파하고 완산정을 설치하였다. 소매 색깔은 백자(白紫)이다.

○백제의 온조왕이 북한산에 도읍하다.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已見上) … 史本記云, 百濟始祖溫祚. 其父難牟王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州之王無子, 只有三女, 見朱蒙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州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恐後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岳,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歸彌離忽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漢成帝鴻佳(嘉)三年也. 沸流以彌離忽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城, 後以來時百姓樂悅,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解爲氏. 後至聖王, 移都於泗泚, 今扶餘郡. (彌離忽, 仁州, 慰禮, 今稷山) 按古典記云,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佳三年癸酉, 自卒本扶餘至慰禮城, 立都稱王, 十四年丙辰, 移都漢山(今廣州),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肖古王, 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北漢城(今楊州), 歷一百五年, 至二十二世文周王卽位, 元徽三年乙卯, 移都熊川(今公州), 歷六十三年, 至二十六世聖王, 移都所夫里, 國號南扶餘, 至三十一世義慈王, 歷一百二十年

<『三國遺事』「紀異」卷2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

남부여(南扶餘) 전백제(前百濟) 북부여(北扶餘) …

『삼국사기』 본기에 백제 시조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왕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피난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그 곳의 왕은 아들이 없고 단지 딸 셋이 있었다. 왕은 (주몽이) 비상한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둘째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주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비류이고 다음은 온조였다. 태자가 온 후 그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드디어 오간(烏干)·마려(馬黎) 등과 함께 남으로 달아나니 백성이 많이 그를 따랐다.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가서 살고자 하므로 십신(十臣)이 간언하기를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동쪽으로 높은 산이 웅거하며 남쪽으로. 기름진 평야를 바라보고 쪽으로 큰 바다로 나뉘어져 있어 그 천험의 지리적 형세를 얻기 어려운 곳이니 여기에 도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인민(人民)을 나누어 미추홀에 가서 살고,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여 십신(十臣)의 도움을 받아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때는 한(漢) 성제(成帝) 홍가(鴻佳) 3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濕)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는데, 위례에 와서 보니 그 도읍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그 인민이 편안한 것을 보고 참회(慙悔)하여 죽으니 그의 신민(臣民)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이 올 때 기뻐하였다 하여 그 후 국호를 고쳐 백제(百濟)라 하였다. 백제의 세계(世系)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씨(氏)를 해(解)라 하였다. 그 후 성왕(聖王) 때에 사자(比) [泗泚(泚)]로 도읍을 옮기니 지금 부여군(扶餘郡)이다 【미추홀(彌離忽)은 인주(仁州)요, 위례(慰禮)는 지금 직산(稷山)이다】 .

『고전기(古典記)』에 따르면 동명왕(東明王)의 제3자 온조는 전한(前漢) 홍가(鴻佳) 3년 계유(癸酉)에 졸본부여(卒本扶餘)로부터 위례성에 와서 도읍을 세우고 칭왕(稱王)하였다. 14년 병진(丙辰)에 도읍을 한산 [지금 광주(廣州)] 으로 옮기고 389년을 지냈으며,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인 함안(咸安) 원년에는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을 취(取)하고 도읍을 북한성(北漢城) 【지금 양주(楊州)】 으로 옮기어 105년을 지냈다. 제22대인 문주왕(文周王)이 즉위하던 원휘(元徽) 3년 을묘(乙卯)에는 도읍을 웅천(熊川) 【지금 공주】 으로 옮기어 63년을 지냈고, 제26대 성왕(聖王)에 이르러서 도읍을 소부리(所夫里)로 옮기어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하여 제31대 의자왕(義慈王)에 이르기까지 120년을 지냈다.